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사물 명칭의 환유적 확장 연구

-한국어 '우산' 과 영어 UMBRELLA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상 원

사물 명칭의 환유적 확장 연구

-한국어 '우산' 과 영어 UMBRELL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onymic Extensions of Object Names:
Focusing on Korean *wusan* and English *umbrella*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상 원

사물 명칭의 환유적 확장 연구

-한국어 '우산' 과 영어 UMBRELLA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영 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상 원

정상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명주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I . 머리말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2
3. 연구 방법	8
4. 논의의 구성	10
II . 이론적 배경	11
1. 영상도식	12
2. 은유	17
3. 환유	19
3.1. 환유의 정의	20
3.2. 환유의 원리	21
3.2.1. 확대지칭 원리	21
3.2.2. 축소지칭 원리	23
3.3. 환유의 양상	24
3.3.1. 확대지칭 양상	24
3.3.2. 축소지칭 양상	25

Ⅲ . ‘우산’의 환유적 확장의미 분석	27
1. ‘우산’의 중심의미	27
2. ‘우산’의 확장의미	28
2.1. 형태를 대신하는 환유	28
2.2.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보호’의미	30
2.2.1. 한국어 ‘우산’의 ‘보호’의미	31
2.2.2. 영어 <i>umbrella</i> 의 ‘보호’의미	37
2.3.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영향’의미	42
2.3.1. 한국어 ‘우산’의 ‘영향’의미	42
2.3.2. 영어 <i>umbrella</i> 의 ‘영향’의미	43
2.4.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통제’의미	44
2.4.1. 한국어 ‘우산’의 ‘통제’의미	44
2.4.2. 영어 <i>umbrella</i> 의 ‘통제’의미	46
Ⅳ . 결론	48
<참고문헌>	51

표 목 차

<표 1>	4
<표 2>	8

그림 목 차

[그림 1]	18
[그림 2]	29
[그림 3]	29
[그림 4]	33
[그림 5]	40
[그림 6]	45

ABSTRACT

A Study on the Metonymic Extensions of Object Names: Focusing on Korean *wusan* and English *umbrella*

Jung, Sang-w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Choi Young-ju, Ph.D.

The literal meaning of *umbrella* is 'a device to protect you from rain'. However in various contexts it refers to 'inclusion in an organization,' 'protection,' 'influence,' 'control.'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many different meanings do *wusan* and *umbrella* have in various contexts? 2) whether Korean *wusan* and English *umbrella* share their extended meanings or do they mean something different?

The prototypical meaning of 'a device to protect from rain' is extended to 'protection,' 'influence,' and 'control' through the metonymy OBJECTS FOR FUNCTION. Umbrella refers to its main function of 'protection,' as well as its additional function, 'control.' In the sentence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in the US Security Umbrella, umbrella designates two meanings. First, Korea is protected by the U.S. security umbrella. Second, the U.S. takes advantage of the negotiation by us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renegotiation of the FTA. The control meaning is derived because people under the umbrella must follow wherever the person who holds the umbrella in order to be protected from the rain.

*Key words: metonymy, metonymy extend, image-schema, *wusan*, *umbrella*, inclusion in an organization, protection, influence, control

1. 머리말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금까지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어떻게 은유 및 환유적 확장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해가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언어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신체에 관한 개념에서 출발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신체관련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 개념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견되며 (노진서2015, 오예옥2015, 이강호 2015, 최영주2018), 신체 움직임을 은유적 혹은 환유적으로 개념화한 것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견된다 (김경희 2010, 안명철 2013, 정병철 2017, 종결 2011, 최영주 2017). 또한, 신체적 반응을 통해 어떻게 ‘감정’이 개념화 되는가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강병창 2012, 권익호 · 성민희 2009, 나윤희 2013, 송부선 2006, 오상석 2014a, 2014b, 장부연 2013).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가 신체 관련한 개념화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물의 개념이 어떻게 은유적 환유적으로 확장되는가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물인 ‘우산’의 개념이 어떻게 환유적으로 확장되는가를 영어와 한국어 표현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한국어 ‘우산’과 그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인 *umbrella*가 환유적 확장으로 인하여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는가?
2. 한국어 ‘우산’과 그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인 *umbrella*의 의미 확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한국어와 외국어에서 특정한 개념의 환유적 확장을 분석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신체어의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 둘째 신체와 관련된 행동의 개념을 분석한 연구, 셋째 신체적 반응을 통해 감정이 어떻게 개념화되는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먼저 신체어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노진서(2015), 오예옥(2015), 이강호(2015), 최영주·김의산·김혜민·정선주(2018) 등이 있다. 노진서(2015)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신체부위인 ‘손’을 중심으로 하는 비유적 표현을 ‘그릇’, ‘물체’, ‘사람’, ‘대상’으로 분류 비교하여 두 언어의 개념화 과정의 유사성을 밝혔다¹⁾.

오예옥(2015)에서는 한국어 ‘얼굴’과 그에 해당하는 독일어 *Gesicht*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과 독일인들은 감정, 처지, 건강상태를 얼굴표정에 비유하지만, 특히 한국인들은 얼굴의 열, 얼굴색, 그리고 얼굴모습에도 비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상이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과 독일인은 ‘얼굴’을 대부분 유사한 개념구조로 사용하였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상이한 개념구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강호(2015)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와 영어와 중국어에서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 개념의 환유적 확장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촉각과 청각에 관계된 환유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이 독일어/영어와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시각과 관련된 환유가 많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환유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두 언어가 언어유형학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 위와 같은 연구에서는 두 언어 간의 개념화 특징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영주·김의산·김혜민·정선주(2018)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신체의 머리와 목

1) 상이한 두 언어 문화권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 사용자들이 손과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념화의 결과가 각각의 언어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노진서 2015: 22)

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의 의미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확장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목과 관련하여 영어와 한국어에서 ‘생명’과 ‘경력’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머리와 관련해서 한국어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표현을 찾지 못하였고 영어에서는 발견이 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에서는 목에 ‘생명’의 의미가 집중이 되었고 영어에서는 목과 머리에 모두 ‘생명’의 의미가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목숨’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을 숨을 담는 그릇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목을 위험에서 구하는 상황(save one's neck)을 묘사하거나 머리를 단두대에 올려놓는 상황(put one's head on the block)을 묘사함으로써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 목과 머리가 모두 ‘생명’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다음으로 인간의 행동을 환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경희(2010), 안명철·황판탄응아(2013), 종결(2011), 정병철(2017), 최영주(2017) 등이 있다.

김경희(2010)에서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동사 ‘보다’와 *ver/mirar*의 의미 확장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어와 한국어에서 ‘보다’는 ‘지각→판단→수행→경험(획득)’의 방향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며, 스페인어에서는 ‘보다’가 한국어와는 달리 *ver*과 *mirar*의 두 가지로 나뉜다³⁾. *ver*는 기본적으로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며, 그 외에 ‘확인하다’라는 수행적 의미, ‘만나다’, ‘(경험이) 있다’ 등의 경험적 의미로도 확장되었다. 반면 *mirar*의 의미는 ‘주의하다’와 같은 수행적 의미로만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바⁴⁾, *ver*보다는 제한적이다.

안명철·황판탄응아(2013)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동사 ‘먹다’와 *Ăn*의 의미 확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에 따라 한국어 ‘먹다’는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니며, 베트남어에서는 여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로

2) 이 연구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생명’에 관련된 신체어가 ‘경력’의 의미로도 확장된다는 되는데, ‘목을 걸다’, *risk one's neck*, *put one's head on the block* 등의 표현에서 ‘생명’과 ‘경력’의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이는 인생에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와 직장을 얻고 하고 되고 하는 문제가 은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최영주 2018: 96).

3) *ver*는 영어의 *see*와 같이 행위를 경험하고 수용하는 순수인지동사로 분류되고, *mirar*는 영어의 *watch*와 같이 능동적 인지행위동사로 분류된다. 즉 *ver*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위를 경험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mirar*는 능동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4) 이 연구에서 *mirar*의 의미 확장과 관련된 용례는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것은 없는 대신,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례만 소수 제시되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와 베트남어 동사 ‘먹다’와 *ăn*의 의미 확장 유형⁵⁾

유형	한국어	베트남어
1유형	내가 밥을 먹는다 (S[행위자]+O[대상])	Ăn cơm(밥을 먹다) (S[행위자]+O[대상])
2유형	내가 겁을 먹었다 (S[경험자]+O[대상])	Ăn giải(상을 먹다) (S[경험자]+O[대상])
3유형	솜이 물을 먹었다 (S[처소]+O[대상])	Vải ăn màu(옷감이 색깔을 먹다) (S[처소]+O[대상])
4유형	옷감에 풀이 먹었다 (AD[처소]+S[대상])	Gi ăn vào dây thép(녹이 철강을 먹다) (S[원인]+O[대상])
5유형	브레이크가 안 먹는다 (S[대상])	Đám đất ăn về xã bên(이 땅이 옆 지방에 먹다) (AD[처소]+S[대상])
6유형	-	Hồ dán không ăn(풀이 잘 안 먹는다/붙는다) (S[대상])

위 표를 살펴보면, 두 언어의 의미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기본 의미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먹다’의 의미가 확장 되면 부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의미 영역이 두드러지는 반면, 베트남어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의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종결(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 ‘먹다’와 ‘吃’의 의미 확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기본 의미가 같고, 의미 확장에서도 그 경로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확장 의미 가운데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두 나라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먹다’는 기본의미와 피동적 의미 등에서 같은 확장양상을 보이며, 한국어에서는 자동사와 보조동사도 쓰일 수 있다. 또한 ‘먹다’는 주로 감정적인 측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吃’는 타동사로만 쓰이고, 은유를 통해 목적어에 따라 새로운 확

5) 안명철·황관탄응아(2013: 316)에 따르면 ‘S’는 주어(Subject)를, ‘AD’는 부사어(Adverbial)를, ‘O’는 목적어(Object)를 나타낸다.

장의미를 나타낸다.

정병철(2017)은 한국어와 영어 동사 ‘잡다’와 *take*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확장 의미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잡다⁶⁾’의 기본 의미는 정지된 상태이거나 자신을 향하여 움직이는 대상을 잡는 경험과 더 강하게 연결된다고 하였다. 한편 영어 *take*의 기본 의미는 한국어와 유사하기는 하나, 대상을 잡아서 이동하는 경험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영주(2017)는 한국어와 영어 동사 ‘먹다’와 *eat*의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두 단어 모두 공통적으로 ‘섭취→저작→삼킴→소화’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은유적 개념화에서 앞의 네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섭취’ 단계가⁷⁾, 영어에서는 ‘저작’ 단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언어적 사실이 확인된다. ‘먹다’와 *eat*는 그 개념이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먹다’에서는 ‘섭취’ 단계와 관련하여 ‘부도덕한 소유’, ‘나쁜 경험’과 같은 의미가 나타나며, *eat*는 ‘저작’ 단계의 파괴적 성격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감정 개념을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송부선(2006), 권익호·성민희(2009), 강병창(2012), 나윤희(2013), 장부연(2013), 오상석(2014a), 오상석(2014b) 등이 있다.

송부선(2006)은 영어와 한국어의 ‘화’와 ‘행복’의 감정과 관련된 개념 은유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화의 감정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화는 용기속의 뜨거운 액체’, ‘화는 불’이 주요한 개념 은유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몸에 열이 나고, 목이 붉어지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본 한편,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오장육부, 이, 간, 뼈, 명치’ 등의 신체어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화를 세부적으로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영어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행복’의 경우, 두 언어 모두 ‘행복은 위(up)’, ‘행복은 땅 위에서 뜨는 것’이라는

6) ‘멧돼지를 잡았다’에서는 ‘멧돼지를 붙잡았지만 아직 멧돼지가 계속 날뛰는 경우’와 ‘멧돼지를 잡아서 이미 제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잡다’가 활성화하는 영상이 하나의 정지된 영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면들의 연속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체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정확히 몇 개의 영상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병철 2017: 200).

7) 이 연구에 따르면 ‘먹다’에서는 ‘수용’, ‘추가’, ‘소유’의 은유적 의미가 나타났다.

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의 신체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행복은 활기찬 에너지’라는 은유 또한 두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한국어에서는 기체 형태의 에너지로 행복이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⁸⁾.

권익호·성민희(2009)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신체어의 의미를 ‘그릇’, ‘음식물’, ‘끈’, ‘물체’, ‘날씨’, ‘온도’, ‘구멍’의 일곱 가지 유형의 은유로 분류하여 그 개념화 과정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은유 유형 가운데 ‘온도’ 은유는 모두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목표 영역에서 신체적 경험을 근거로 하는 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강병창(2012)에서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에서 감정이 어떻게 ‘따뜻함’과 ‘뜨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와 연결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 확장이 적용되는 개념 영역 가운데 감정 영역에서 한국어가 영어와 독일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외에 성격과 행동/사건 영역에서는 세 언어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영어와 독일어에서 인간 활동 이외의 대상/사물에 적용되는 경우는 한국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각 영역에서는 영어와 독일어가 한국어보다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⁹⁾.

나윤희(2013)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에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 모두 분노는 ‘에너지의 증대’ 또는 ‘불’, ‘무기’, ‘열’이라는 은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에 따라 분노의 단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장부연(2013)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신체와 연관지어 의미 확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슬픔의 감정이 주로 얼굴과 관련된 신체어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이외에도 머리, 목, 가슴, 손, 어깨, 내장 등의 신체어로도 나타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¹⁰⁾. 이와는 달리 ‘배’와 ‘눈썹’과 관련된

8) Lakoff(1993)와 Kövecses(2000)에 따르면 감정의 개념화는 보편적인 신체적 현상이 동기로 생성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는 동시에 신체적 경험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항상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따른 개별성도 가진다(송부선 2006:136)

9)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온도감각이 은유, 환유와 같은 인지 기제를 통해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양상은 같은 유형의 현상, 상황, 사건일지라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개념화될 수 있다(강병창 2012: 176).

10) - 얼굴과 관련한 신체어+슬픔

· 얼굴 전체: 얼굴을 찡그리다

· 얼굴의 부분에 해당하는 신체어: 이마에 주름살이 가득하다, 코끝이 찡하다, 눈앞이 캄캄하다

신체어는 일본어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오상석(2014a)은 한국어와 영어의 ‘두려움’의 환유와 은유 표현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려움’의 개념적 환유의 경우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신체적, 생리적 반응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 다시 말하면 한국어 또는 영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이 서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¹²⁾, 개념적 은유 또한 개념적 환유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각 언어에서 다른 은유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국어의 ‘두려움은 음식이다’와 영어의 ‘두려움은 건축물이다(FEAR IS A CONSTRUCTION)’가 그 예이다¹³⁾. 이 연구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 보편적인 인지 기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공통적 속성을 갖지만 각각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상석(2014b)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심장’을 근원으로 하는 감정의 개념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슴’과 *heart*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감정 개념화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Niemeler(2008)에서 제시한 ‘한국어는 심장 중심이고 영어는 머리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모형을 수정하여 보다 정교한 분류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 부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행동의 개념을 분석하고, 인간의 감정이 어떠한 사물이나 신체 부분으로 의미가 확장하는가의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 성과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개념의 환유적 확장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산’이라는 사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중심 의미가 확장되는 양상을 한국어와 영어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머리와 관련한 신체어+슬픔: 고개를 떨구다, 관자놀이가 찡하다
- 목+슬픔: 목이 메다
- 가슴+슬픔: 가슴에 멍이 들다
- 내장+슬픔: 애간장이 녹다
- 손+ 슬픔: 손이 떨리다
- 어깨+슬픔: 어깨를 들썩이다

11) Lakoff and Johnson(1999)와 Kövecses(200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신체화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오상석 2014a: 164).

12) Lakoff and Johnson(1999)와 Kövecses(200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보편적 인지 기능 및 그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오상석 2014a: 164).

13) 먹는다는 행위가 과정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를 반영하는 한국적 문화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한다(오상석 2014a: 166-167).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산’과 *umbrella*의 환유적 확장 양상을 밝혀내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웹 텍스트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 웹 텍스트 자료는 크게 사전, 말뭉치, 언론 보도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연구 대상 자료 목록

자료 구분		한국어	영어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The Free Dictionary
말뭉치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English Language Centers, Sentencedict, The Idiom Connection
언론 보도 자료	신문	강원도민일보, 국민일보, 굿모닝충청, 뉴스1, 뉴스핌, 동아일보, 대전투데이, 데일리안, 문화일보, 뷰티누리, 브릿지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월간조선, 의학신문, 조선일보, 조선비즈, 중앙일보, 큰소리,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American Red Cross, Audi MediaCenter, Business Insider, Daily, Global Guide, GOMEZ, Guardian News&Media, Gulfnews, Financial Mirror, Maclean's, New York Times, Nikkei Asian Review, NPR, Odessa American, Postmedia, PR Newswire, Spectator, StarTribune, The Japan Times, War on the Rocks, 2019-Education USA
	방송	Jtbc, SBS, tvN, YTN	Fox 5 Atlanta, TBS, The Press of Atlantic City, WATN, 9 Severe Weather Center

이상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우산’과 *umbrella*가 사물로서 지니는 중심 의미뿐 아니라 문맥에 따른 확장 의미를 모두 살필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사전이나 말뭉치에서는 용례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두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 언론 보도 자료의 경우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한 기사문 및 사설, 그리고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또는 드라마 대본과 같은 준구어 텍스트에서는 어떠한 확장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자료 가운데 한국어와 영어 말뭉치 자료가 양적으로 균일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한국어 말뭉치의 제약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의 제약을 다양한 언론 보도 자료 텍스트에서 보완할 수 있으며, 텍스트의 유형에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산’과 *umbrella*의 중심 의미와 확장 의미를 살펴보는 데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4.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그간 은유 및 환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기술한다. 이어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논의의 전개 과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영상도식, 은유, 환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간단하게 인지언어학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인지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도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개념의 의미 확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비유 표현인 은유와 환유의 이론을 예시와 함께 다양하게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구체적 사물인 ‘우산’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의미와 확장의미를 구분한 후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 분석한다. 더불어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제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의 삶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제스처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이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vans(2009: 47)에 따르면 ‘인지언어학’은 언어, 마음, 인간의 사회문화적 경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지언어학은 언어적 사고와 관행을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은 인간의 인지작용의 기본 기제인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 언어에 대한 기술 및 설명에서 생성문법이나 형식의미론과 같이 일상적 경험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 있던 형식적 접근법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언어를 인지적 기제로 바라보는 관점의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체제가 정립되었다. 그 결과 인지언어학에는 ‘인지의미론¹⁴⁾’과 ‘인지문법론’이라는 하위 분야가 자리잡게 되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개념화한다. 개념화는 가장 중요한 인지 기제인 은유와 환유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은유는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와 같이 두 개체의 유사성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써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환유는 어떠한 개체와 인접성(contiguity)이 있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부를 백악관(WHITE HOUSE)이라 칭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언어활동에서 은유와 환유는 인간의 개념 체계를 구조화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념 체계를 구조화하는 일정한 방식을 나타낸 것을 ‘영상도식(image

14) 이 가운데 인지의미론은 경험과 신체화된 인지, 그리고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야이다 (Evans & Green 2006: 50). 신체화된 인지의 예를 들자면 눈으로 ‘보다’라고 할 때의 *see*가 물리적 시각이라는 의미 외에도 *know* 또는 *understand*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see*는 물리적 시각(physical vision)과 관련된 의미 외에도 인지(cognition)와 지식(knowledge)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seeing is knowing, seeing is believing* 등과 같은 개념적 은유는 우리의 인지작용인 인식과 지식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눈으로 보는 신체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머릿속 인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Lakoff & Johnson 1980: 50).

schemas)’이라 한다. 영상도식은 인간이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파생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지구조로서(Ungerer & Schmid 1996: 160), 인간은 영상도식으로써 어떠한 개념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영상도식이 인간의 경험에 ‘결속성(coherence)’을 부여하기 때문이다(Johnson 1987: 1). 다시 말하면 신체적 경험을 통해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영상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이 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인지의미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개념을 구조화하는 여러 기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영상도식을 시작으로, 은유와 환유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환유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환유의 원리 및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1. 영상도식

Lakoff(1987: 10)에 따르면 사람의 개념체계를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는 신체적 경험에서 성장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만 의미가 통하며, 더욱이 개념체계의 핵심은 지각과 신체활동 및 사회적 경험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얼핏 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손발의 움직임, 언어의 사용 같은 작용은 사람의 두뇌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두뇌라는 신체의 일부분은 그 속에 깃든 정신이 있기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체적 경험과 활동을 통해 대상물과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구조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고 이해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임지룡 1997: 141-142). 영상도식은 앞서 말한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개념형성 이전에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영상도식의 양상은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부분-전체 도식’이란 긍정적 경험은 사람신체의 건강한 상태이며 부정적 경험은 팔다리와 같이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 것을 말한다. 또 남녀가 모여 전체를 이루는 결혼을 긍정적 경험으로, 전체가 분리되는 이혼을 부정적 경험으로 본다. 다음 (1)과 (2)의 예시를 살펴보자.

15) 이러한 사실은 “사람은 어머니 몸속에서부터 ‘그릇으로서의 모체’라는 영상 도식을 경험하고 태어나서는 지각과 운동, 곧 운동감각적인 반복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도식 구조를 익히며, 이를 다시 기본적인 경험을 조직화하는데 사용한다”(임지룡 1997: 142-14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 a.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b. 우리의 소원은 통일!
 c.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임지룡 1997: 148)
- (2) a. 팔다리를 자르다
 b. 파산하다
 c. 낙동강 오리알(임지룡 1997: 148)

(1)의 예시는 전체를 지향하는 것을 긍정적인 가치로 보는 표현들에 대한 예시이며, (2)의 예시는 전체가 해체되거나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부정적인 가치로 보는 표현들의 예시이다. 즉 신체적 경험을 근거로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인 영상도식을 형성하며, 사물과 과정이 통합된 전체를 긍정적인 가치로 보고 전체가 분리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부정적인 가치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심-주변 도식’이란 사람의 신체 중 몸통과 심장 등 내장기관을 중심으로 보고, 손과 발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부위를 주변으로 본다. 예를 들어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주변의 상실은 생명과 무관하지만 신체의 중심부에 입은 상처는 치명적이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사회제도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 다음 (3)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3) 국가경제정책은 국가전체의 경제성장과 효율을 전제로 추진된다. 어쩔 수 없이 특정 공간의 집중현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중심(center)지역과 주변(periphery)지역이 나타나게 된다. 중심지역은 행정, 경제 및 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어 영향력이 큰 반면, 주변지역은 의존성이 강하며 중심지 이외의 지역과는 연관관계가 낮고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약한 특징이 있다(<http://www.kgnews.co.kr>: 2017.12.28)

(3)의 예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제도에서도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경제성장과 효율이라는 이유일 수도 있고, 대부분 한 나라의 수도는 변방이 아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에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진을 찍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덜 중요한 사람을 주변으로 배치하게 된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중심은 긍정적인 가치로 보고 주변은 부정적인 가치로 인지되는 것이다.

셋째, ‘연결-분리 도식’이란 두 개체의 연결 구조에 의한 영상도식으로 연결은 긍정

적이며, 분리는 부정적이다. 이 영상도식은 신체경험인 어머니의 뱃줄에서 비롯되는데, 태아가 뱃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긍정적이며 유산을 통해 연결고리가 중간에 끊기는 것은 부정적이다. 출산을 통해 뱃줄이 분리될 경우에도 단지 물리적인 단절일 뿐이며 가정이라는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부모의 자식 간의 양육이라는 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사회생활에서도 끈이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고리를 뜻하는 매체로 쓰이기 때문에 ‘끈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외톨이가 되거나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기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표현이 은유적으로 확장되기도 하는데 다음 (4)의 예시를 보자.

- (4) a. 인연을 맺다
- b. 인연을 끊다(임지룡 1997: 152)

(4a)의 인연을 맺는 다는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긍정적인 경험이며 (4b)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는 서로 의사소통을 단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부정적인 경험이다. 즉 우리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연결도식을 형성할 때, 연결은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분리는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릇 도식’이란 안과 경계 그리고 밖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을 하나의 그릇으로 볼 경우에 숨을 쉬어 들이마시는 공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음식물은 몸의 안쪽으로 향하기에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반면 숨을 내쉬거나 대소변의 배설 같이 몸 안의 해로운 것을 몸의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안은 긍정적이고 바깥은 부정적이다. Lakoff(1987: 271)에서는 우리의 몸이 그릇 속에 들어 있는 대상으로 경험을 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어머니의 뱃속에 위치한 태아는 안전한 보호처이기에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깥은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릇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릇이기에 태아는 결국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렇게 그릇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고통과 위험을 동반하게 된다. 이렇게 출산이 된 이후에는 가정이라는 그릇에 속하게 되고 이 그릇 도식이 확장된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국가이다. 그러나 이런 그릇의 영상도식이 역전될 수도 있다. 다음 (5)의 예시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다.

- (5) a. 7번째 구속 수감된 대도 조세형,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뉴스핌 2019.11.14.)
- b. 카터 전 美 대통령, 뇌압 상승으로 입원(뉴스1 2019.11.12.)

(5a)에서는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이라는 그릇에 갇히는 내용의 기사이며 (5b)에서는 카터 전 美 대통령이 병원이라는 그릇에 입원하는 부정적인 경험의 내용이다. (5a)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출소하는 경우와 (5b)에서는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그릇일 경우에는 안이 긍정적이고 바깥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우리의 몸이 그릇 속에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반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균형 도식’이란 균형과 불균형의 대립에 관한 영상도식이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몸을 다치거나 병이 들면 이런 균형이 깨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균형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며 불균형은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단순히 신체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너무 짜지 않게 간을 잘 맞추는 것도 이런 균형 도식과 연관이 있다. 또 정직이나 예의에 있어서도 이런 균형의 흐트러짐에 대한 일상언어가 있는데 다음 (6)의 예시를 살펴보자.

- (6) a. 너무 정직하면 왕따 됩니다 - 직장에서 살아남기 -(큰소리 2016.04.13.)
- b. “연말이 되면 모임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농수산홍쇼핑), “수분이 달아나실 틈이 없어지실 겁니다” (현대홍쇼핑) 등 제품에 대해 경어를 사용하는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국민일보 2012.01.12.)

(6a)에서 너무 정직하면 직장 동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 결국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며 (6b)에서는 지나친 존댓말은 예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쇼핑에서 사물에까지 존댓말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언어습관에 대한 기사이다. 이런 예시들을 통해 균형이 흐트러지면 부정적인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균형 도식이 추상적인 세계에서까지 확장되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가치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방향 도식’이란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같이 방향과 관련된 영상도

식이다. Hill(1991: 173)에 따르면 우리가 방향을 인지할 때 수직을 수평보다 더 쉽게 지각하고 수평에서는 앞-뒤를 왼쪽-오른쪽보다 더 쉽게 개념화 한다고 한다. 이 경험에 따르면 위/아래 > 앞/뒤 > 왼쪽/오른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한다. 먼저 위-아래 방향부터 살펴보자면 우리 몸의 형태가 위를 향하고 성장하면서도 위로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경험에 따라 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음식을 신체의 윗부분에 위치한 입을 통해 섭취하고, 배설시에는 신체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구멍을 통해 불순물을 내보낸다. 또 우리가 기쁠 때는 손으로 위로 번쩍 들어서 흥분된 기분을 나타내고 앉아있던 경우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 반면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축 처지거나 털썩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이런 위와 아래의 가치를 얼굴 표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기쁨의 표시로 짓는 미소에서는 입의 가장자리가 위로 올라가며, 슬픔의 표시로는 눈물을 아래로 흘리거나 입술의 가장자리가 아래로 처지게 된다.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위와 아래의 가치는 이렇게 위는 긍정적인 가치로 아래는 부정적인 가치로 인지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뒤 방향을 살펴보면 우리 신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얼굴이 앞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앞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 목표를 향해 이동할 때도 눈이 있는 앞쪽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각을 느끼는 혀에서도 달다, 짜다, 맵다 등을 느끼는 기본적 미각어는 혀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쓰다, 시다, 땀다와 같은 부차적인 미각은 혀의 옆쪽이나 뒷쪽에 분포 되어 있다(임지룡 1993:118-119). 이런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가치가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경주에서 우승자는 결승선을 맨 앞에서 통과한 사람으로 정하고, 무대 공연을 볼 때도 앞에 위치할수록 무대를 잘 볼 수 있기에 좋은 자리로 여긴다. 뒤가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싸움이나 격투 시합 등에서 드러난다. 상대에게 등을 보이는 행위는 비겁한 행위 혹은 패배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서 오는 가치에 의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이 되는데, 앞으로 향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며 뒤는 과거 지향적을 뜻한다. 그 결과로 앞은 긍정적인 개념이고 뒤는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 그 예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진하는 군대의 모습과 패배하여 후퇴하는 군대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왼쪽 방향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신체적인 경험에 의하면 비대칭적이다. Cooper&Ross(1975: 88)에 따르면 *dexterous*(솜씨좋은)는 라틴어에서 오른쪽을 뜻하며 *gauche*(솜씨가 서툰)는 불어에서 왼쪽을 뜻하고 *sinister*(불길한)는 라틴어에서 왼쪽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 손님을 환영할 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할 때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는다. 선서를 하는 경우에도 오른손을 치켜들며 종교행사에 역시 오른손으로 성호를 긋는다. 이러한 신체적인 경험이 사회문화에 녹아 있기에 오른쪽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왼쪽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게 있다는 것은 우리 국어 표현 중 ‘왼새끼를 꼬다’라는 것에 잘 드러난다.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애를 태우는 것, 혹은 관용적으로 비비 꼬아서 말하거나 비야냥 거리는 것을 뜻한다(최기호 1995: 246). 즉 오른쪽과 왼쪽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각각 긍정과 부정의 가치로 인지되고 이에 따라 언어표현도 동기화되어 있다(임지룡 1997: 147-161). 이상으로 영상 도식의 여섯 가지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는 비유의 두 기제 중 하나인 은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은유

은유는 독립된 두 영역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인지적 과정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이용해 낯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책상의 윗부분을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머리에 비유해서 사용하는 ‘책상머리’라는 표현과 사회적인 위치에서 책임자를 뜻하는 ‘우두머리’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명확한 ‘근원영역(source domain)’으로 불명확한 ‘목표영역(target domain)’을 개념화 하는 인지적 전략이다. 최재영·김태호(2016: 73)에서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은유적 언어표현(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s)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개념적 은유는 구체적이고 친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근원영역으로서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새롭게 다가가는 목표영역을 명확히 개념화하는 사고의 방식이며, 은유적 언어표현이란 개념적 은유가 구체적 언어로 표현된 것을 지칭한다”라고 하였다.

개념적은유의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LOVE IS A JOURNEY*와 같이 여행이라는 출발점에서 경로를 따라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 나타나는 요소들과 사랑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킨 구조가 있다. 이 구조를 사상화(mapping)하자면 다음 (7)과 같다.

(7) Source: 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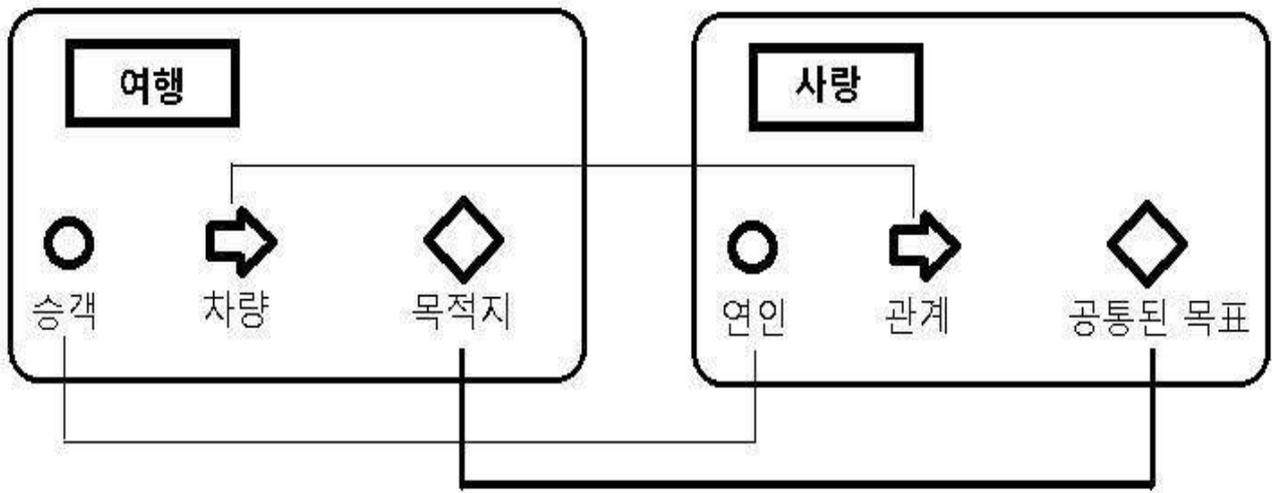
- the travelers ==>
- the vehicle ==>
- the journey ==>
- the distance covered ==>
- the obstacles encountered ==>
- decisions about which way to go ==>
- the destination of the journey ==>

Target: LOVE

- the lovers
- the love relationship itself
- events in the relationship
- the progress made
-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 choices about what to do
- the goal(s) of the relationship

(Kövecses 2010: 9)

위에서 보듯이 *JOURNEY*의 구성요소와 *LOVE*의 구성요소가 체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LOVE*의 영역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추상의 영역이기에 먼저 *JOURNEY*의 요소들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 *LOVE*의 영역을 *JOURNEY*의 나뉜 요소들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없이는 여행이 시작될 수 없듯이,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이 사랑의 관계 역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여행에서 방향을 선택하듯이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사상되는 모습은 <그림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사상

[그림1]에서 보듯이 근원영역인 여행과 목표영역인 사랑의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대응된다. 사랑하는 연인은 함께 여행하는 승객이며, 연인의 관계는 승객들이 탄 차량이며, 연인의 공통된 목표는 승객들이 도달해야할 최종 목적지를 가리킨다. 이런 요소간의 연결을 통해 여행의 영역이 사랑의 대상과 서로 체계적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여행의 요소를 가지고 대응되는 추상적인 사랑의 요소들을 개념화 시켜주는 과정을 개념적 은유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환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3. 환유

환유는 동일한 영역과 인접한 하위영역에서 인접성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다. 하나의 개념 영역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인접성을 가진 다른 개념 영역에 있는 요소를 대신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분인 머리를 가지고 전체인 사람을 지칭하여 인원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머리를 헤아리다’라는 표현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를 지능이라는 기능으로 지칭하여 ‘머리가 영리하다’라는 표현 등이 있다(임지룡 2008: 23). 다음 (8)은 지칭기능에 대한 예시이다.

- (8) a. 그는 우리 당의 입이다.
- b. 자동차에 기름을 찰했다.

(8a)의 ‘입’은 확대지칭 양상으로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가리키며, (8b)의 ‘자동차’는 축소지칭 양상으로 ‘엔진’이라는 자동차의 부품을 가리킨다(임지룡 2013: 26).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는 같은 개념 영역 안에서 ‘매체(vehicle)’를 통해 ‘목표(target)’에 접근을 제공해 주는 인지적 전략이다. 개념적 환유가 성립되려면 같은 영역에 있는 ‘매체’를 통해 ‘목표’를 표현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태릉인’이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선수’, 즉 ‘국가대표급 실력을 지닌 선수’를 지칭하는 확대 지칭은 매체가 이해, 기억, 인식에 대한 참조점이 되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매체를 목표에 접근 시켜주는 과정을 ‘사상(mapping)’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은유의 사상과 다른 점은 은유는 다른 영역 간의 사상 관계인 반면에, 환유는 한 영역 속에서 사상을 갖는다는 점이다.

3.1. 환유의 정의

환유는 비유법 중의 하나로서 ‘한 실재물의 이름을 인접한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였다(Taylor 1989: 122). 다시 말해 환유는 하나의 개체를 그 개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개체로써 개념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 1980: 41)에 따르면 은유와 환유가 임의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개념화함으로써 대응체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환유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기 위해 한 실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akoff & Johnson 1980: 35). 다음 (9)는 이런 환유의 표현이 사용된 예시이다.

- (9) a. The **Times** hasn't arrived at the press conference yet
 (= the reporter from the Times).
- b. The **automobile** is clogging our highways
 (=the collection of automobiles).

(9a)에서 *Times*는 기사를 지칭하는 환유의 표현이고, (9b)에서 *automobile*은 자동차의 일부분으로 자동차 전체를 지칭하는 환유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환유는 지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 실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전체를 나타내는 다양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는지는 그 전체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9a)를 보면 *Times*는 단순히 기사를 지칭할 뿐 아니라, 기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의미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Times가 아직 기자회견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 스티브 로버츠가 Times의 기자일지라도 ‘스티브 로버츠가 아직 기자회견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Lakoff & Johnson 1980: 41). 이런 환유의 지칭기능은 사물 사이의 인접성(contiguity)에서 비롯된다. 다음 (10)은 지칭기능이 인접성에서 비롯된 예시이다.

- (10) a. 그는 맥주 한 병을 마셨다.
 b.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시켰다.

(10a)에서 마시는 대상은 ‘병’이 아닌 그 속에 담겨 있는 맥주이다. 여기에서 ‘병’

은 용기 속의 내용물인 맥주와의 공간적 인접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임지룡 1995: 226). (10b)에서 주문의 대상은 ‘잔’이 아니라 잔속에 담겨 있는 커피이다. 여기에서도 ‘잔’은 안의 내용물인 커피와의 공간적 인접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을 통해 환유의 표현이 그것과 인접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현상에 사용되면서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환유의 원리

임지룡(1997: 202)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직설적인 방식 이외에 사물이나 상황을 확대지칭하거나 혹은 축소지칭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과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확대지칭 원리는 ‘나무’를 통해 ‘숲’을 파악하는 일이며, 축소지칭 원리는 ‘숲’을 통해 ‘나무’를 파악하는 일을 말한다. 즉 환유의 기본 원리는 부분에서 전체로 넓혀가는 확대지칭과 전체에서 부분으로 줄여나가는 축소지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확대지칭과 축소지칭의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전체의 어떤 부분이 지칭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논리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표현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무리없이 사용되어 환유에 의한 언어표현이 가능하다.

3.2.1. 확대지칭 원리

우리는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거나 상대방의 얼굴표정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확대지칭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데 Lakoff(1987: 78)의 이론을 중심으로 확대지칭 원리에 대한 환유의 성격을 살펴보자. Lakoff는 일상언어에 작용하는 다양한 환유의 원리를 ‘환유 모형(metonymic model)’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환유 모형’은 어떤 배경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 인지모형(이하 ICM)이 주어질 때, 두 원소 A와 B사이에서 적용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목표개념인 A를 함수관계에 있는 B로써 나타내는 장치인데, A의 부분인 B가 이해·기억·인식을 함에 있어서 더 쉽거나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대지칭에 의한 환유의 원리라고 한다. Lakoff가 제시한 ‘환유 모형’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캐나다 중부 아메리카 인디안 오지브와족에 대한 Rhodes(1977)의 사례인데 파

티에 참석한 인디안에게 어떻게 파티장을 왔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대답은 (13)과 같았다.

- (13) a. I started to come.
- b. I stepped into a canoe.
- c. I got into a **car**. (Lakoff 1987: 78)

이중 (13c)에서 *car*를 타고 어디에 가는 것은 다음(14)와 같은 ICM을 포함하고 있다.

- (14) a. precondition: You have (or have access to) the vehicle.
- b. Embarcation: You get into the vehicle and start it up.
- c. Center: You drive (row, fly, etc.) to your destination.
- d. Finish: You park and get out.
- e. End point: You are at your destination. (Lakoff 1987: 78)

위(14)의 예시를 통해 Rhodes는 오지브와족의 경우 ‘탑승점’을 사용하여 전체의 ICM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관습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말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ICM의 일부인 ‘탑승점’이 전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다음 (15)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15) a. 세미나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 b. 기차를 탔습니다.

(15b)의 답변처럼 우리말에서도 탑승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확대지칭에 의한 환유의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뉴스나 광고 등에 있어 모든 과정을 다 찍어서 보여 줄 수가 없기에 생략, 비약, 역설 등을 통해 이야기를 꾸며 전달한다. 또한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얼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얼굴이 인물 전체를 확대지칭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3.2.2. 축소지칭 원리

앞의 확대지칭 원리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방식이라면 축소지칭 원리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좁혀지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Langack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축소지칭 원리에 의한 환유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Langacker(1993: 31)에 따르면 환유를 ‘활성지역’과 ‘모습’의 불일치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활성지역’이란 특정한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관계에 참여하는 실재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음 (16)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16) a. Your dog **bit** my cat.
 b. Your dog **chased** my cat.

(16a)의 예시에서 개의 활성지역은 이빨이 되는데 이 활성지역은 실재물에서 분리되거나 선명하게 경계가 정해진 지역이 아닌, 관계에 있어 상호작용의 초점지역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위의 ‘물다’에 의해 지칭되는 과정은 이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턱, 근육, 신경계 등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빨의 참여가 다른 지역의 참여보다 ‘물다’라는 개념에 더 직접적이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활성지역이 된다(Langacker 1984: 177). (16b)의 예시는 활성지역과 모습이 일치하고 개와 고양이의 모습이 획일적인 전체로 생각된다. (16a)에서 탄도체(trajector)가 개이면 표지물(landmark)은 고양이인데, 개의 활성지역은 ‘이빨’이며 고양이의 활성지역은 드러나 있지 않은 고양이의 한 부분이므로 활성지역과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 (16b)에서 탄도체는 개이며 표지물은 고양이인데 탄도체와 표지물은 전체가 활성지역이므로 활성지역과 모습이 일치한다. Langacker(1993: 30)에 따르면 우리가 환유표현에 나타나는 지칭의 변화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참조점(reference point)’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환유의 표현에 의해 지칭되는 실재물이 실제로 언급되는 실재물에 대한 ‘정신적 접근(mental contact)’을 제공해주는 참조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환유는 두 실재물 간의 정신적 접촉을 확립하기 위한 개념적 참조점으로서 환기시켜주는 인지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언어에서 환유가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참조점 능력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17)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17) a. 철수가 개에게 물렸다.
- b. 철수가 왼팔을 개의 이빨에 물렸다.

(17a)는 활성화역과 모습이 일치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이 필요할 때는 활성화역과 모습이 일치하는 (17b)가 선택된다. 이런 활성화역과 모습의 불일치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간결성을 확보하여 능률적이며 인지적으로 자연스럽다. 고로 활성화역과 모습의 불일치는 언어체계에 있어 유통성을 크게 증가시켜준다(임지룡 1997: 213).

이렇게 확대지칭 원리와 축소지칭 원리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3.3. 환유의 양상

환유의 과정은 체계적인데, 이는 환유의 양상을 유형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환유의 양상은 ‘확대지칭 양상’과 ‘축소지칭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대지칭 양상’은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축소지칭 양상’은 전체가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임지룡 1995: 229).

3.3.1. 확대지칭 양상

확대지칭 양상의 예를 들자면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11a)와 소유물을 통해 소유자를 확대지칭하는 (11b), 개체를 가지고 유형을 확대지칭하는 (11c), 원인이 결과에 포섭되어 결과를 확대지칭하는 (11d), 반대로 결과가 원인에 포섭되어 원인을 확대지칭하는 (11e)가 있다.

- (11) a. 그 연구소에는 국내의 우수한 두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 b. 훈련소의 빨간 모자.
- c. 모닝 커피 한 잔의 여유.
- d. 수해지역 중장비 자원봉사자 팔 걷고 나섰다.
- e. 한여름 더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두뇌’는 머릿속에 위치한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보통 지능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
 을 많이 한다. (11a)에서 ‘두뇌’역시 신체의 일부분을 통해 ‘사람’을 나타내는 환유의
 표현이다. (11b)에서 ‘빨간 모자’는 빨간 모자를 착용한 사람에서 특정인(조교)을 지
 칭한 보기이다. 소유자의 이름을 잘 모르거나 혹은 소유자를 객체화시키기 위해 양자
 간의 인접성에 기초하여 잘 알거나 드러난 소유물로 소유자를 지칭하는 환유의 표현이
 다. (11c)에서 ‘커피’는 특정 개체를 나타내려는 것 보다는 이런 유형의 상품 전체를
 확대 지칭한 것이다. 이 표현을 접한 사람이 ‘아침에 잠이 깨려면 커피를 마셔야 한
 다’고 반응하는 것에서 ‘커피’라는 유형을 확대지칭하는 환유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1d)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인데, ‘팔을 걷고 나섰
 다’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수해라는 원인을 팔을
 걷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결과를 지칭하는 환유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이다.
 (11e)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표현은 손을 들어 항복하거나 포기했다는 뜻을
 나타낸다. ‘손을 든다’는 결과를 통해 그만큼 더위가 심하다는 원인을 지칭하는 환유
 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이다.

3.3.2. 축소지칭 양상

축소지칭 양상의 예를 들자면 사물의 전체를 부분으로 축소지칭하는 (12a)와 생산자
 가 생산품을 축소지칭하는 (12b), 생산지가 생산품을 축소지칭하는 (12c), 장소가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축소지칭하는 (12d), 건물이 그 건물에 사는 주인이나 책임자를
 축소지칭하는 (12e), 용기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을 축소지칭하는 (12f), 시간이
 사건이나 행위를 축소지칭하는 (12g)가 있다.

- (12) a. 안방에서 드라마를 본다.
 b. 그는 기아를 몰고 있다.
 c. 치즈는 임실이 제일이다.
 d. 눈물바다로 변한 기자회견장.
 e. 청와대에서 내려온 보도지침.
 f. 스위스 사람들, 만나면 일단 한 잔 한다.
 g. 매달 기도하던 자리에 ‘416생명안전공원’ 확정

(12a)에서 ‘안방’이란 안방 안에 있는 TV를 지칭하는데, 예전 TV가 귀하던 시절에 그것을 안방에만 두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어떤 연예인이 TV에 다시 출연하게 되었을 때 안방에 복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2b)에서 ‘기아’는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를 의미하며 생산자가 생산품을 지시하는 보기이다. (12c)에서 ‘임실’은 생산지가 생산품을 지시하는 보기이다. 임실에서 만든 치즈가 유명하기에 임실피자라고 하면 당연히 임실에서 만든 치즈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12d)는 ‘기자회견장’이라는 장소가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보기이다. (12e)는 ‘청와대’라는 건물이 그 곳에 사는 책임자 혹은 주인을 지칭하는 보기이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정부의 지시 혹은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 사람들은 아페리티프라 불리는 식전주를 무척 좋아하는데, (12f)에서 ‘잔’은 이 아페리티프라 불리는 식전주를 지칭하는 보기이다. (12g)에서 ‘416’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을 지칭한다. 시간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위를 포섭하고 있기에 이 경우에 시간이 사건이나 행위로 축소지칭된다.

이상으로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개념형성 이전에 구조화되는 ‘영상도식’과 우리에게 익숙한 요소를 가지고 대응되는 추상적인 요소들을 개념화 시켜주는 과정인 ‘은유’와 부분과 전체로써 사물이나 사건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인지기제라 할 수 있는 ‘환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의 중심 의미가 어떻게 환유로 확장되는지를 살펴보자.

III. ‘우산’의 환유적 확장의미 분석

1. ‘우산’의 중심의미

‘우산’은 비나 눈, 우박이 내릴 때 몸이나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물건이다. 한자로는 ‘雨傘’이라고 쓴다. 여기에서 傘(우산 산)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는 ‘우산’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우산’의 중심의미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8) a.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내린다하여 철수는 우산을 챙겼다.
- b. 학교 가는 도중 문방구의 게임기에 정신이 팔려 철수는 우산을 잃어버렸다.
- c. 소나기가 쏟아져 철수는 영희에게 우산을 빌려서 썼다.
- d. 오늘날씨 전국 곳곳에 눈과 비!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SBS 2019. 03. 15.)
- e. [날씨] 우산 챙기세요!... 돌풍·벼락·우박 주의 (YTN 2015.06.20.)

(18)의 예시에서 ‘우산’은 원형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중심의미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TV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같이 접하는 일기예보나 신문의 날씨안내 등에서 비나 눈, 우박을 예고하며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는 중심의미의 ‘우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어 *umbrella*의 중심의미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래 (19)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19) a. Where is my **umbrella**, I wonder?
- b. It's raining and I didn't bring an **umbrella**.
- c. She held her **umbrella** over my head.
- d. Grab an **umbrella**: wet weekend ahead in Atlanta.
 (FOX 5 Atlanta 2019. 10. 25.)
- e. Grab your **umbrella**: Stormy afternoon brings chance of hail, gusty winds across Central Florida. (9 Severe Weather CENTER 2019. 07. 19)

(19)의 예시에서 *umbrella*도 비나 눈, 우박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

용되는 실제적인 물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우산’과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산’의 중심의미에서 형태와 기능으로부터 파생되어 확장의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환유의 표현들에 대해 살펴보자.

2. ‘우산’의 확장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우산’은 비나 눈, 우박같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심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이런 ‘우산’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미가 형태와 기능으로부터 파생되어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데, 형태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파생된 주변적 의미로는 하부조직을 뜻하는 ‘산하’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우산’의 기능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파생된 주변적 의미로는 ‘보호’와 ‘영향’, ‘통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먼저 외부의 문제로부터 내부의 물체를 보호하는 형태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된 내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자.

2.1. 형태를 대신하는 환유

‘우산’은 일자 모양의 우산대를 펼쳤을 때 우산대를 기준으로 반구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부터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파생된 ‘산하’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자. ‘산하’는 조직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인데, 傘(우산 산)이라는 즉 ‘우산’의 아래에 있는 실제적 형상이 비주얼 이미지로 봤을 때 조직도의 모습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인다. 형태가 강조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 a. 광주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 (세계일보 2019.05.20.)
- b. 도쿄신문 "日, 항공자위대 산하 우주부대 창설 예정" (YTN 2019.05.14.)
- c. 에스티로더 산하 美 ‘T00 FACED’ 일본 상륙 (뷰티누리 2019.05.16.)

(20a)의 ‘산하’기관 목록 [그림2]을 비주얼 이미지화 해보면 [그림3]에서 ‘우산’의 가장 윗부분에 광주광역시청이라는 상위 조직이 위치하고 그 밑으로 ‘산하’기관들이

나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하 ‘산하’ 기관들의 비주얼이미지는 아래 그림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하 지방공기업

지역	기관명
광주	광주광역시상수도
광주	광주광역시하수도
광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광주광역시환경공단



[그림 2]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그림 3]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20b)는 일본의 항공자위대란 조직 아래에 우주부대가 창설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20c)는 TOO FACED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에스티로더라는 기업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 ‘우산’이 형태를 대신하는 의미가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어의 *umbrella*도 앞의 한국어 ‘산하’ 처럼 형태를 대신하는 의미가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21)의 예시를 보자.

- (21)a. The country's blood banks are **under the umbrella** of the American Red Cross (American Red Cross 2019.06.09.)
- b. The four rings of the Audi badge symbolise the brands Audi, DKW, Horch and Wanderer, which were combined **under the umbrella** of Auto Union in 1932 and eventuate into Audi AG in 1985 (Audi MediaCenter 2007.06.28.)
- c. Many previously separate groups are now operating **under the umbrella** of a single authority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umbrella>)

(21a)의 예시를 살펴보면 국립혈액은행이 미국적십자 기구의 하부조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상부조직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under the umbrella*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21b)에서는 Audi라는 브랜드의 심벌마크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32년에 Auto Union이라는 연합의 아래로 위치하면서 Audi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음을 말하기 위해 *under the umbrella*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21c)에서는 별개로 존재하던 많은 그룹들이 (상부의) 단일 기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under the umbrella*가 사용되었다. 이상으로 *under the umbrella*라고 하면 ‘우산’ 밑에 위치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에 ‘우산’의 형태가 강조되어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점이 한국어의 ‘산하’와 비슷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의 문제로부터 내부의 물체를 보호하는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된 내용을 살펴보자.

2.2.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보호’ 의미

‘우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것을 모두 함께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의미를 통해서도 ‘우산’은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우산’의 기능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파생된 주변적 의미로는 ‘보호’와 ‘영향’, ‘통제’의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비, 눈으로부터의 보호기능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단순히 비나 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문맥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우산’이라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 따라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단체를 통제하는 기능으로도 사용이 되었다. 이런 상반된 의미로 사용이 되는 상황은 머리말에서 간략하게 다뤘던 영상도식에서 언급한 ‘그릇 도식’에서의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앞서 다루었던 ‘그릇 도식’의 예로 일차적으로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받는 태아를 예로 들었는데, 자궁이라는 그릇의 안에 있는 것은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외부의 가족 위협이 있는 밖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위험한 외부로 나가는 과정인 출산 이후에 태아는 먼저 가정이라는 그릇에 속하게 되고 이 그릇 도식은 계속 확장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국가라는 그릇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안은 긍정적이고 밖은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던 가치가 반대로 바뀌는 예로는 감옥과 병원을 들었는데, 죄를 지어 감옥이라는 그릇의 안에 속하는 상황과 질

병으로 병원이라는 그릇의 안에 속하는 상황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감옥이라는 그릇의 밖으로 나가는 상황과 질병을 치유하고 병원이라는 그릇의 밖으로 나가는 상황은 긍정적 가치를 가진다. 이런 ‘그릇 도식’ 처럼 ‘우산’이라는 영역의 안에 속했을 때 보호와 통제라는 상반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산’ 아래에 있는 모두가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안에 함께 있어야 하기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따라가야 함으로써 여기에서 통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외부의 문제로부터 내부의 물체를 보호하는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2.2.1. 한국어 ‘우산’의 ‘보호’ 의미

이 단락에서 다룬 ‘우산’은 기본적인 비, 눈으로부터의 보호 의미가 확장되어 단순히 비나 눈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내용을 다룬 예시들이다. 먼저 ‘우산’이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된 예시를 살펴보고, ‘우산’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보호의 의미로 사용된 예시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후 ‘우산’이 이런 보호적 기능으로부터 비롯되어 상징을 나타내는 예시들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보호 기능으로 사용된 ‘우산’의 예시들을 살펴본 후에는 영어 *umbrella*도 위 ‘우산’과 마찬가지로 보호의 의미,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보호의 의미, 또 이런 보호적 기능으로부터 비롯되어 상징을 나타내는 예시들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우산’이 보호 의미로 사용된 아래 (22)의 예시부터 살펴보자.

- (22) a. ‘보호무역 우산 쓴 기업’ 애플 이미지 추락..삼성엔 득
(서울신문 2013.08.05.)
- b. 빗발치는 증시 악재...배당주 우산 속으로 (아시아경제 2108.11.19.)
- c. MB정부 “불교계가 좌파의 ‘우산’ 되지 않게 차단” (한겨레 2018.10.26.)
- d.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생활안정·사업재기 자금’ 노란우산 쓰세요(강원도민일보 2018.11.23.)
- e. 서울시약 양덕숙 ‘튼튼한 노란우산 되겠다’ (의학신문 2018.11.09.)

(22a)는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ITC)

의 애플 특허 침해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기사 제목이다. 2013년 6월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하였으나 미 정부가 나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애플이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우산’ 아래 놓인 기업으로 이미지가 추락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산’은 원형적인 의미가 아닌 미정부로부터 무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보호의 기능으로부터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22b)에서 배당주 ‘우산’ 속으로라는 말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배당주의 보호 아래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산’이 보호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22c)에서는 불교계가 좌파진영의 ‘우산’ 역할을 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문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로 불교계가 좌파진영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우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d)에서는 ‘노란우산’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여 준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2e)에서 ‘노란우산’은 회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므로 위(22)의 예시들은 모두 ‘우산’의 보호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된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보호를 거두는 경우에 찾아오는 위기를 강조하여 계속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긴 내용으로 아래 (23)의 예시를 살펴보자.

- (23) a. **홍종학** 중기부 장관 "비올 때 우산 뺏지 말아 달라"...금융권에 중기지원 당부 (브릿지경제 2018.11.28.)
- b. 정부 로또 판매권 회수에.. 편의점 "비올 때 우산 빼앗나" (조선비즈 2018.11.12.)
- c. 차 부품업체들 “옥석 구분없이 대출 기피, 비 올 때 우산 뺏나” (국민일보 2018.11.14.)

(23a)에서 말하는 비가 오는 상황이란 위기를 말한다. 이런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는 금융권의 대출, 즉 ‘우산’을 뺏지 말고 보호를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23b)에서는 편의점의 주요 수입원인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려는 계획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편의점의 경영상황 즉 비가 오는 상황에서 ‘우산’을 뺏는 행위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제목의 기사이다. (23c)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청업체들의 위기를 비가 오는 상황으로 보았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우산’을 신청했지만 은행에서는 적절한 이유 없이 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 정

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우산’을 뺏지 말아달라는 호소로서 사용되었다. (23)의 예시들은 비가 내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산’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경제적 상황과 연관되어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아래 [그림4]는 (23)과 비슷한 상황을 다룬 시사만평이다.



[그림 4] 최민의 시사만평 - 구멍 난 우산 (2018.08.29.)

[그림4]를 살펴보면 우산의 구멍 난 왼쪽에 위치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청년들은 비를 잔뜩 맞고 있고 우산의 튼튼한 오른쪽에 위치한 대기업·부유한 사업가들은 우산의 보호아래에서 비 한 방울 젖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집중호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볼 수 있고 우산은 금융권의 대출 같은 금융제도로 볼 수 있다. 같은 우산이라는 금융권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청년들은 구멍 난 우산처럼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금융권이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대기업·부유한 사업가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를 해주는 것을 풍자해주는 그림이다. 이런 비주얼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 ‘구멍 난 우산’이라는 비주얼 이미지를 통해서 아래 (24a)와 같이 다른 상황도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24)는 보호를 강조했던 위의 예문들과 달리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우산’에 대한 예시이다.

- (24) a. 구멍 송송 난 새 우산, 병원양수도계약서 〈하〉 ‘친절한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18〉 (의사신문 2018.11.12.)
 b. 김병준 "文 정부 경제정책, 태풍 앞에 비닐우산" (YTN 2018.10.29.)

(24a)에서 ‘구멍 송송 난 새 우산’을 살펴보자. 보통 계약서라 함은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고의로 누락이 되어있다고 가정해보자.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구멍 송송 난 새 우산’이란 것은 결국 계약당사자를 보호해 줄 수 없는 허술한 계약서를 말할 수 있다. 고로 여기에서 ‘우산’은 계약당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산’역시 원형적 의미가 아닌 보호의 기능으로부터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24b)에서 ‘비닐우산’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태풍 앞에 서면 튼튼한 우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데, 약하디 약한 ‘비닐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혀서 비바람으로부터 우산 밑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경제정책이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태풍 앞의 비닐우산’과 같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닐우산’은 비록 미약하지만 ‘우산’이 가지고 있는 보호의 기능에서 확장되어 사용된 환유적 표현이다. 때로는 이런 ‘우산’이 보호의 의미를 가질 때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¹⁶⁾. 다만 본 연구는 사물명칭의 환유적 연구가 목적이기에 가볍게 각주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산’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보호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안보우산’, ‘핵우산’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먼저 ‘안보우산’이 사용된 아래 (25)의 예시를 살펴보자.

16) 씨니: (한숨) 내 인생에도 우산이 생겨야 할텐데..(도깨비, 2화. tvN, 2016). 이 장면에서 혈혈 단신 천애고아인 씨니가 말하는 의미의 ‘우산’은 원형적인 의미의 ‘우산’이 아닌 반려자를 의미하는 ‘우산’을 원한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비’라는 역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우산’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5) a. 트럼프 "한국, 공짜로 美 안보우산 쓴다" (세계일보 2015.08.24.)
- b. 북핵 폐기 요원한데 文정부는 '안보우산' 걸어차나
(문화일보(사설) 2018.11.28.)
- c. 주한 미-EU상공회의소 "미국 안보우산에 안심" (데일리안 2006.10.16.)
- d. [한미 정상회담] 일관된 트럼프...안보우산 대가로 경제적 반대급부
(브리짓경제신문 2017.11.07.)

(25a)에서 '안보우산'은 한국이 대가 없이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고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5b)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안보우산'을 걸어차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역시 '안보우산'이 보호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c)도 역시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안보우산'이 사용되었다. (25d)에서 '안보우산'은 보호를 대가로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25)의 예시에서 '안보우산'은 모두 보호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결합단어인 '핵우산' 역시 보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이 되었는데 아래 (26)의 예시를 살펴보자.

- (26) a. 미군 철수? 핵우산 못쓰냐?...전작권 전환 둘러싼 주장들
(Jtbc news 2018.11.05.)
- b. '전술핵' 꺼내든 한국당 "핵우산 강화 위해 반입 고려해야"
(뉴스핌 2019.10.24.)
- c. 핵우산 대신 핵무기를 택했다면...우크라이나 운명은 달라졌을까
(한국일보 2019.09.07.)

(26)에서의 '핵우산'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보호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핵우산'은 세계에서 가장 핵을 많이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군대가 국내에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외부의 핵보유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6a)에서 '핵우산'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남한을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의미로써 보호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26b)에서 '핵우산'은 전술핵을 반입함으로써 자국의 보호막을 더 두텁게 만들자는 내용이기에도 역시 보호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26c)에서의 '핵우산'은 서양열강의 압박으로 인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우산이라는 보호를 선택했던 우크라이나의

이야기이다. 이 칼럼의 소제목에는 ‘러시아 개입 막기엔 너무 얇은 핵우산’이라는 말이 쓰였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안전을 보장하는 핵우산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10년 후에는 러시아로 합병되는 사태에 대한 설명인데, 비록 오랫동안 보호를 받지는 못 했지만 10년 동안의 보호를 받았기에 여기에서도 ‘핵우산’은 보호의 의미로 쓰였다. 이렇듯 (26)의 예시에서 ‘핵우산’은 ‘우산’이 가지고 있는 보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우산’이 보호의 기능으로부터 비롯되어 상징을 나타내는 예시들이다. ‘우산’이라는 형태와 색깔이라는 정서적 특징이 결합하여 상징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다음(27)의 예시를 살펴보자.

- (27) a. 대전복지관 초록우산도서관 1일 북캠프 진행 (대전투데이 2018.11.26.)
- b.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자리매김 (동아경제신문 2019.10.16.)
- c. (숨쉬는 4.16) 노란우산이 세월호 아픔을 안아 줄 수 있다면…
 (굿모닝 충청 2016. 8.19.)

(27a)의 ‘초록우산’은 어린이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이념을 따서 비바람으로부터 꿈나무들을 지켜준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27b)의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로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27c)의 ‘노란우산’ 프로젝트는 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당시 정부의 주도하에 세월호 참사가 진실 규명은커녕 하루빨리 잊히길 바라는 보수언론 매체 등의 행동에 반하여 진실 규명을 바라고 유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여기에서 ‘노란우산’은 참사에 대한 진실의 폭우를 함께 맞겠다는 응원의 상징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시대적 사건과 결합되어 상징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살펴보자.

- (28) a. 홍콩의 ‘우산혁명’ 과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위한 그들의 외침
- b. 시위대 상징 방독면 쓰고 우산 들고…‘홍콩 자유의 여신상’
 (JTBC 2019.10.14.)

(28a)는 2017년 홍콩행정장관 투표에서 91.9%의 지지율을 받은 존창을 제치고 1.5%의 지지를 받은 캐리람이라는 친중지지자가 당선이 되면서 이에 분노한 홍콩시민들이 참

여한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홍콩 역사 최대의 시위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산혁명’은 경찰이 쏘는 최루탄과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 연약한 우산을 방패로 고스란히 맞서던 시위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우산’이 저항의 상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콩 예술가 케이시 왕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동지애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산은 시위대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28b)에서는 홍콩 자유의 여신상은 한손에 ‘우산’을 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뉴욕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이 세계에 빛을 비추는 ‘햇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기시킨다. 즉 홍콩에서는 ‘우산’이 뉴욕의 ‘햇불’만큼의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서 ‘우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물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확장되어 결국 상징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우산’이 보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시부터 시작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보호 의미를 나타내는 예시, 그리고 보호의 기능에서 더 확장이 되어 상징이 되는 예시까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어에서도 *umbrella*가 보호의 의미가 강조되어 환유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2.2. 영어 *umbrella*의 ‘보호’ 의미

영어 *umbrella*가 보호 의미로 사용된 아래 (29)의 예시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umbrella*는 단순하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보호만이 아닌, 보호 의미가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 (29) a. Essence to Launch **Umbrella** Safety Solution at CES & Augment Line of Senior Care Solutions (PRNewswire (press release)-2018. 12. 12.)
- b. DR. ISLAM: Under the **Umbrella** of IBD (Odessa American-2018. 12. 09.)
- c. Manitoba's Lifeflight operations under Shared Health **umbrella** (POSTMEDIA 2019.10.25.)

(29a)에서 *Umbrella* 시스템은 원격 위치에 근로자를 두고 있거나 시간을 투자하여 복지를 보장하는 정부 및 민간조직에 이상적인 시스템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으로서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Umbrella*는 원형적 의미가 아닌

보호의 기능이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9b)에서는 IBD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9c)의 *umbrella*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보건 장관인 Cameron Friesen의 발표에서 사용된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구급 의료 항공시스템의 민영화과정에서 나온 우려에 대해 항공 구급차 서비스는 건강의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영어의 *umbrella* 역시 한국어 ‘우산’과 마찬가지로 보호의 기능이 환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umbrella*가 가지고 있는 보호의 기능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이 되었지만 그 보호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broken umbrella*에 대한 예문이다.

(30) Deciding to Change: Is a **Broken Umbrella** Enough to Weather the Storm?

Everybody wants their movie ending, to reach the pot of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No one wants to sink in the rain first (because there is a chance of drowning). It isn't a bad thing to be afraid of failing. It's a realistic fear, an understandable caution. The only problem is, it's going to rain no matter what. Will a **broken umbrella** be enough? (THE PRESS OF ATLANTIC CITY 2019. 11.07.)

(30)의 예시는 변화의 결심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실패라는 위험, 즉 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릴 테지만 실패를 두려워만 하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broken umbrella*의 밑에서 비를 그대로 맞는 것처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broken umbrella*는 비록 손상을 입어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umbrella*가 가지고 있는 보호의 기능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 환유적 표현이다.

다음으로는 *umbrella*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보호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어 ‘안보우산’, ‘핵우산’과 마찬가지로 *security umbrella*와 *nuclear umbrella*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먼저 *security*가 *umbrella*의 앞에 위치하면서 안보를 강조하며 보호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31)의 예시를 살펴보자.

(31) a. CYPRUS: NATO not ruled out of post-solution **security umbrella**
(Financial Mirror-2018. 11. 20.)

- b. With U.S. **security umbrella** at stake, Abe to go all out forging ties with Trump (The Japan Times-2017. 1. 2.)
- c. All this as we profit from the great China market and remain safe under Uncle Sam's **security umbrella**. (Spectator.co.uk-2018. 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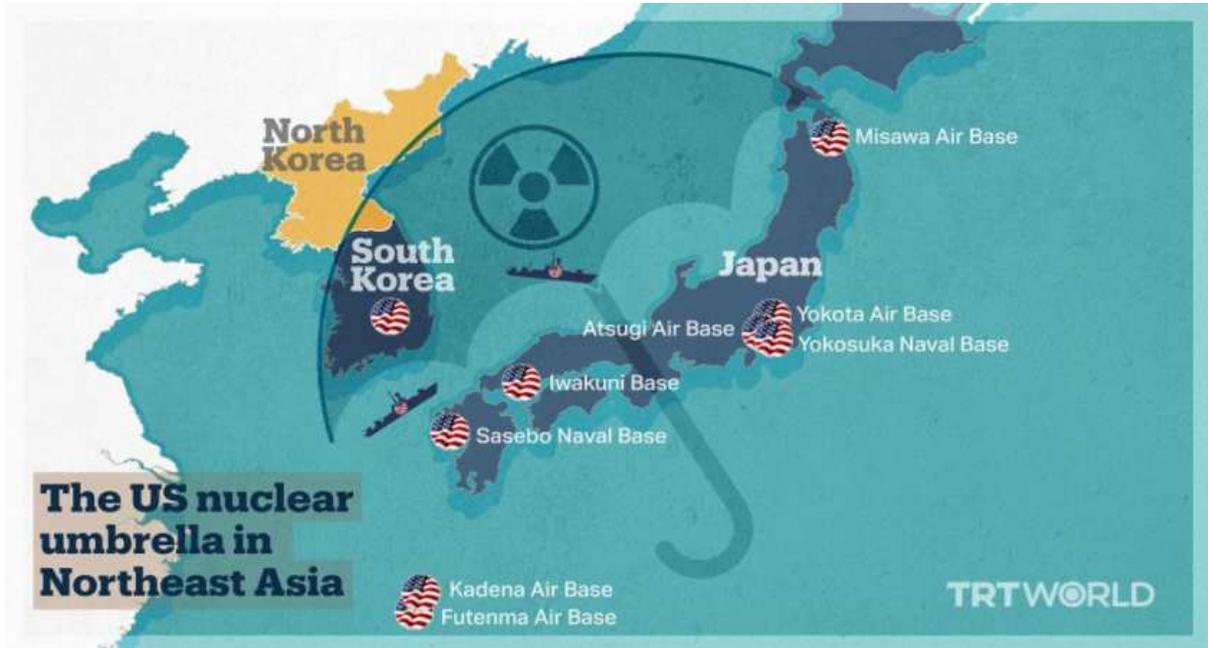
(31a)에서는 NATO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security umbrella*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31b)에서는 일본의 *security umbrella*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인데, 일본은 전적으로 미국의 보호에 의지하는 나라로서 흔들리는 *security umbrella*가 안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보호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31c)에서는 *security umbrella*가 중국 시장에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 보호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31)의 예시에 사용된 *security umbrella*는 한국어의 ‘안보우산’과 마찬가지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보호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결합단어인 *nuclear umbrella* 역시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이 되는데 아래 (32)의 예시를 살펴보자.

- (32) a. Trump To Promise **Nuclear Umbrella** To Seoul And Tokyo: Yomiuri (tbs 2017.10.15.)
- b. North Korea has stuck to their definition, which is that they expect the U.S. to remove the U.S. **nuclear umbrella** that protects South Korea and Japan (npr 2019. 01.01)
- c. REVISITING THE VALUE OF THE U.S. **NUCLEAR UMBRELLA** IN EAST ASIA (GOMEZ 2018.03.06.)
- d. New ICBM raises doubt about U.S. **nuclear umbrella**
 With North Korea firing its longest-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on Wednesday, there is increased concern that Washington may become a target and will in turn abandon its obligations to defend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to prioritize its own national security (Daily 2017.11.29.)

(32a)의 예시에서 *nuclear umbrella*가 한국어의 ‘핵우산’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핵보유국의 위협으로부터 서울과 도쿄 혹은 동아시아를 보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래 [그림5]를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5] The map shows the US nuclear umbrella which includes military bases and aircraft carriers in Northeastern Asia. (TRTWorld 2019. 03. 04.)

위 [그림5]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핵우산’이라는 보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일본과 한국의 영해에 미국 군함이 상주하고 있음으로서 군 기지와 함께 동아시아를 보호하고자 하고 이는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입장이 바로 (32b)에 이어진다. (32b)에서는 북한이 한·일 양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역시 *nuclear umbrella*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일 양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c)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긴장하여 본국의 방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고려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nuclear umbrella*, 즉 보호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역시 *nuclear umbrella*는 보호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32d)에서 *nuclear umbrella* 역시 (32c)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ICBM 미사일로 인한 미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동북아 동맹국을 방어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으로 *umbrella*의 보호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예시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의 ‘우산’과 마찬가지로 양쪽 모두 외부의 문제로부터

내부의 물체를 보호하는 의미가 확장되어 환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보호 의미가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가 보호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아래 (33)은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예시이다.

(33) a. BBB: What you need to know about “**umbrella**” insurance
(WATN 2019.11.13.)

b. What is **umbrella** insurance? It can protect you if you get sued
(BUSINESS INSIDER 2019. 10. 09.)

(33)에서는 한도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그를 보호해주는 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이 칼럼에서 재미있는 내용은 사고가 났을 시 가해자가 저명인사일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의 기대치를 매우 크게 잡고 저명인사인 가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umbrella*가 사용되었다. 보험관련 상품의 홍보에 어김없이 *umbrella*가 등장하는데, 이는 *umbrella*의 보호 의미가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가지게 된 보호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보험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대적 사건이 결합되어 상징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된 *umbrella revolution*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4) a. How the umbrella became a symbol of the Hong Kong democracy protests.
...umbrellas have become the most visible symbol of the demonstrators’ campaign for a more democratic Hong Kong. For its supporters and, increasingly, the media, the growing movement is now “the **Umbrella Revolution**” (Guardian News& Media 2014.09.29.)

b. Why the umbrella is a symbol of hope in Hong Kong.
Media outlets have dubbed the movement the **Umbrella Revolution** and the hashtag of the same name is blowing up on Twitter. Protesters are painting their umbrellas with political messages of freedom and hope. There are a few simple reasons why: umbrellas offer shelter from rain and sun and can act as makeshift barricades. They have also been used as shields against pepper spray fired by the police(MACLEAN'S 2014. 09.30.)

위 (34a)의 예문을 살펴보면 *umbrella*가 민주적인 홍콩을 위한 시위대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고, 이 상징이 점점 더 언론에 등장하면서 *umbrella Revolution*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34b)의 예문에서도 역시 *umbrella*를 홍콩의 희망이라는 상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umbrella*는 경찰의 최루탄을 뿌려대는 강경진압으로부터 시위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의 의미 확장을 넘어 *umbrella Revolution*이라는 상징 및 희망이라는 환유적 표현을 낳고 있다. 같은 상황을 놓고 영어 *umbrella*와 한국어 ‘우산’은 외부의 문제로부터 내부의 물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확장되어 결국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중에서 보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우산’이 가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것을 모두 함께 보호하는 기능이 지닌 의미가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이렇듯 ‘우산’의 보호 기능이 확장되어 사용된 주변적 의미로는 보호와 그 보호의 상징을 나타내는 아이콘, 시대적 사건과 결합한 상징, 마지막으로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같은 ‘우산’의 아래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환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2.3.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영향’ 의미

‘우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것을 모두 함께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호를 받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2.3 장에서는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의 영향력 사례를 찾아 분석해보고자 한다.

2.3.1. 한국어 ‘우산’의 ‘영향’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우산’은 보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호를 계속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우산’이라는 영향력에 속해있는 아래 (35)의 예시부터 살펴보자.

- (35) a. "국내 경영학계는 아직 미국 경영학계의 우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현실" (한국경제 2011. 10. 24.)
- b. 북한은 최근 당 기관지인 노동 신문 등을 통해 잇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핵 위협 철거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제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선일보 1991)
- c.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우리 스스로 핵 대응 정책을 찾을 수 있다.(월간조선 158호, 1993)

(35a)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영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여 미국 기업식 경영 모델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산'은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35b)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요구함으로써 '핵우산'이 북한에 대한 핵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으로 사용되었다. (35c)에서 '핵우산'은 핵의 위협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핵개발 등을 막는 역할을 하는 '핵우산'으로서 역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35)의 예시들은 '우산'이라는 영향력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2.3.2. 영어 *umbrella*의 '영향' 의미

영어 *umbrella*에서도 한국어 '우산' 처럼 보호를 받다가 그 영향력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아래 (36)은 *umbrella*의 영향력에 대한 예시이다.

- (36) a. in a supermarket the purveyance of vegetables might fall under the **umbrella** of the produce manager
(<https://m.cafe.daum.net/readandchange/> 2018.06.06.)
- b. Governments also use the more industrially orientated labs under the **umbrella** of the Fraunhofer society (New scientist 1983.03.05.)
- c. They traveled secretly under the umbrella of dark ness
(<https://sentencedict.com/industrially.html> 2017.08.20.)
- d. Finally, war served to bring all members of a society, soldier and civilian, under the **umbrella** of national consciousness

(<https://sentencedict.com/industrially.html>)

- e. The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came under the **umbrella** of the state Department (Global Guide 2019-Education USA 2019.08.25.)

(36a)에서 *umbrella*는 야채의 공급이 생산 관리자의 책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생산 관리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6b)에서 정부는 섬유소 변형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Fraunhofer 연구소의 영향력 아래에서 실험실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고로 여기에서도 영향력으로 *umbrella*가 사용되었다. (36c)에서 어둠의 영향아래에서 은밀하게 여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umbrella*가 어둠이라는 영향력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36d)에서는 전쟁이 군인과 시민들을 국가의식이라는 영향력 아래로 결집 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국가의식의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umbrella*가 사용되었다. (36e)에서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국무부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umbrella*가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기능으로 쓰인 예시를 살펴보자.

2.4.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 ‘통제’ 의미

‘우산’은 아래에 있는 것을 보호해주지만 여럿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모두가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안에 함께 있어야하기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따라가야 함으로써 여기에서 통제가 발생하게 된다. 2.4장에서는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가 통제 의미로 사용된 사례를 찾아 분석해보고자 한다.

2.4.1. 한국어 ‘우산’의 ‘통제’ 의미

앞서 ‘보호’ 의미로 사용되었던 ‘핵우산’과 ‘안보우산’ 등이 ‘영향’ 의미를 지나쳐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통제’ 의미로 쓰이는데, 이와 같은 예시는 아래 (37)에 나타난다.

- (37) a. "北 '안전보장' 의미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거 "
(아시아경제 2019.09.26.)
- b.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우리 스스로 핵 대응 정책을 찾을 수 있다 (월간조선 158호, 1993)
- c. 美 안보우산 속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시사포커스 2010.12.06.)
- d. 던퍼드 “북·미대화 진전땀 군사태세 변화” 핵우산 재검토하나 (중앙일보 2018.11.07.)

(37a)에서는 북한이 자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요구함으로써 ‘핵우산’이 통제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b)에서의 ‘핵우산’은 우리나라의 핵개발 등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에 미국의 리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역시 통제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6]을 살펴보자.



[그림6] 대구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 (2006.10.20.)

위 [그림6]은 2006년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만평이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하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미국에서 ‘핵우산’, 즉 보호를 거두려는 행동을 취하자마자 바로 입장을 바꿔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맛에 따라 끌려가는, 즉 통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아래 (37c)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었다. (37c)에서의 ‘안보우산’은 북한의 도발로 미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이 일방적인 우위에 서서 한국에는 굴욕적인 요구를 하는 즉 미국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통제적인 의미의 ‘우산’이라고 볼 수 있다. (37d)에서 북-미대화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줄어들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핵우산’ 정책을 재검토하여 압박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고로 여기에서 ‘핵우산’은 통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보호 의미에서도 사용이 되었던 ‘안보우산’과 ‘핵우산’이 통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앞서 언급하였던 ‘그릇 도식’과 대비해보면 보호 의미에서는 미국의 보호라는 그릇 안에 위치할 경우 안이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밖이 부정적 가치를 가진 반면, 통제 의미에서는 미국의 보호라는 그릇이 감옥과 마찬가지로 되어 밖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안은 부정적 가치를 가지고 밖은 긍정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영어 *umbrella*도 한국어 ‘우산’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2.4.2. 영어 *umbrella*의 ‘통제’ 의미

2.4.2.에서는 영어 *umbrella*가 한국어 ‘우산’처럼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제 의미로 쓰인 예시는 아래 (38)와 같다.

- (38) a. They operated under the **umbrella** of the police
(<https://sentencedict.com/industrially.html>)
- b. Police operated under the **umbrella** of the security forces
(<https://sentencedict.com/industrially.html>)

(38a)에서 그들이 경찰의 영향력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인데, 작전이라는 지시를 경찰로부터 받고 그대로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umbrella* 는 통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38b)에서 경찰이 보안군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역시 *umbrella* 가 통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38)의 예시로 볼 때 작전같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통제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가 결합되어 통제 의미로 확장되는 (39)의 예시를 살펴보자.

- (39) a. Pyongyang has constantly took issue with the U.S.'s '**nuclear umbrella**' over South Korea," (gulfnnews.com-2018. 12. 20.)
- b. US **nuclear umbrella** in Asia is non-negotiable: Top official (Nikkei Asian Review-2018. 5. 1.)
- c. Revisiting the Value of the US **Nuclear Umbrella** in East Asia (War on the Rocks-2018. 3. 6.)
- d. An American **Nuclear Umbrella** Means a Lot to Northeast Asia (New York Times-2016. 10. 26.)

(39a)에서는 평양 즉 북한이 미국의 남한에 대한 미국의 *nuclear umbrell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는 즉 미국의 *nuclear umbrella*가 북한을 위협하는 역할, 즉 핵의 개발을 막는 통제적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9b)에서도 미국의 *nuclear umbrella*가 아시아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매우 강한 통제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39c)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nuclear umbrella* 가치를 재검토 한다는 것인데, 핵개발을 통제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 한다는 뜻으로 볼 경우에 통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9d)에서 *nuclear umbrella*가 동북아시아의 전쟁 억제제가 아닌, 강압적인 통제 위협이 되기도 함을 말함으로써 강한 통제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어 ‘핵우산’과 마찬가지로 보호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nuclear umbrella*가 통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산의 손잡이를 누가 잡고 리드하느냐에 따라 통제 받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얽혀있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누구를 보호받는 주체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국가에는 통제가 되고, 반대로 보호를 받는 주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가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어떻게 환유적으로 확장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물건으로 물건의 형태를 대신하는 환유’를 통해 ‘산하’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졌고, ‘물건으로 물건의 기능을 대신’하는 환유를 통해 ‘보호’와 ‘영향’, ‘통제’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형태를 대신하는 환유에서 파생된 ‘산하’의 개념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우산’의 사례로는 ‘광주시 산하기관’, ‘항공자위대 산하’, ‘에스티로더 산하’ 등이 있다. ‘산하’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영어 *umbrella*의 사례로는 *under the umbrella of the American Red Cross*, *under the umbrella of Auto Union*, *under the umbrella of a single authority*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는 동일하게 ‘우산’의 형태가 그 의미에 반영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조직도의 모습을 보면 ‘우산’의 꼭지점처럼 상부조직이 존재하고 그 아래로 하부조직이 우산대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우산과 조직도의 형태적 유사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우산과 *umbrella*는 ‘보호’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보호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사례로는 ‘보호무역’, ‘배당주 우산’, ‘좌파의 우산’, ‘노란우산공제’, ‘구명 난 우산’, ‘비닐우산’, ‘안보우산’, ‘핵우산’ 등이 있다. 이런 보호 의미가 색과 결합하여 확장된 ‘노란우산’, ‘초록우산’ 등이 있다. 그리고 시대적 사건과 결합하여 ‘우산혁명’으로 사용되었다. 영어 *umbrella*의 보호 의미를 나타내는 사례로는 *Launch Umbrella Safety Solution*, *Under the Umbrella of IBD*, *Health umbrella*, *security umbrella*, *Nuclear Umbrella*, *umbrella insurance*, *the Umbrella Revolu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는 모두 사물의 기능을 나타내는 환유를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이한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의 아래에서 외부의 위협(비, 혹은 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유사한 경험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의 의미 외에도 ‘영향’의 의미도 발견된다. 한국어의 사례로는 ‘미국 경영학계의 우산’, ‘핵우산’ 등이 있다. 영어 사례로는 *under the umbrella of the produce manager*, *under the umbrella of the Fraunhofer society*, *under the umbrella of darkness*, *under the umbrella of national consciousness*, *under the umbrella of the state Department* 등이 있다. 이는 누군가의 아래에서 보호를 받다가 때로

는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경험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제’의 의미가 발견되었다. 한국어 사례로는 ‘핵우산’, ‘안보우산’ 등이 있다. 영어 *umbrella*에서 ‘통제’를 나타내는 사례로는 *under the umbrella of the police*, *umbrella of the security forces*, *nuclear umbrella* 등이 있다. 위 결과를 통해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에서 보호 의미로 사용된 사례들이 통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산’이 가지고 있는 비,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여러가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한다는 ‘보호’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보호의 의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 따라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단체를 통제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반된 의미로 사용이 되는 사례는 머리말에서 간략하게 다뤘던 영상도식에서 언급한 ‘그릇 도식’에서의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앞서 ‘그릇 도식’의 예로 일차적으로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받는 태아를 예로 들었는데, 자궁이라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은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위험이 있는 외부는 부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위험한 외부로 나가는 과정인 출산 이후에 태아는 먼저 가정이라는 그릇에 속하게 되고 이 그릇 도식은 계속 확장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국가라는 그릇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안은 긍정적이고 밖은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던 가치가 반대로 바뀌는 예로는 감옥과 병원을 들었는데, 죄를 지어 감옥이라는 그릇의 안에 속하는 상황과 질병으로 병원이라는 그릇의 안에 속하는 상황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감옥이라는 그릇의 밖으로 나가는 상황과 질병을 치유하고 병원이란 그릇의 밖으로 나가는 상황은 긍정적 가치를 가진다. 이런 ‘그릇 도식’처럼 ‘우산’이라는 영역의 안에 속했을 때 보호와 통제라는 상반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산’은 외부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릇 안과 같이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안에 함께 있어야 하기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따라가야만 한다. 여기에서 ‘통제’의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체어와 행동 및 감정 이외의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개념이 환유적으로 확장이 되는가를 한국어 ‘우산’과 영어 *umbrella*를 통해 비교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살펴본 표본들 중 환유적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표본들은 대부분 경제, 정치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그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요나 문학작품 등에 사용된 환유적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사례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강병창, 『‘따뜻함’과 ‘뜨거움’의 온감 연어에 나타나는 비유적 의미 확장 - 한국어, 영어, 독일어의 비교』, 국제어문 55, 2012: 151-181.
- 권익호 · 성민희, 『한 · 일 신체관용어의 개념화 양상-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1, 2009: 19-36.
- 김경희, 『스페인어의 VER/MIRAR 동사와 한국어의 ‘보다’ 동사의 의미 확장 비교 연구』, 스페인어문학 56, 2010: 63-85.
- 나윤희, 『한국어와 프랑스어 분노 표현 비교연구-신체관용어를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연구 27, 2013: 161-183.
- 노진서, 『신체 어휘 관용어의 언어 보편성-신체-한 · 영 손 관용어의 비유의미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2, 2015: 7-28.
- 송부선,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화’와 ‘행복’ 은유』, 한국어의미학 20, 2006: 121-137.
- 안명철, 『한국어 먹아와 베트남어 n의 의미 용법 비교: 격과 의미역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04: 309-352.
- 오상석a, 『한국어와 영어의 ‘두려움’ 개념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연구』, 한국어의미학 44, 141-170.
- 오상석b, 『What Does the Heart Tell You? A Cross-linguistic Study of the Heart Expressions』, 영어영문학 19(4), 미래영어영문학회, 2014.11: 409-435.
- 오예옥, 『한국인과 독일인이 사용하는 얼굴/Gesicht의 인지의미』, 독일언어문학, 2015: 1-21.
- 이강호, 『신체 개념의 환유적 확장-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신체부위 ‘심장’을 중심으로』,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6: 33-55.
- 임지룡, 『의미범주의 원형탐색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5, 국어교육연구회, 1993: 118-119.
- 임지룡, 『환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국어교육연구 27, 국어교육연구회, 1995: 226, 229.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탐출판사 1997: 142-143.
- 임지룡 · 임혜원, 『연결도식과 그 은유적 확장』, 한글276, 한글학회, 2007: 108.

- 임지룡, 『인지언어학의 성격과 설명력』,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08.11: 23.
- 임지룡, 『문법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교육학회, 2013.4: 26.
- 장부연, 『신체부위 관련 감정표현양상에 관한 고찰 -일, 한 양국어의 “슬픔” 관련 감정을 중심으로-』, 일본어 교육연구 27, 2013: 155-176.
- 정병철, 『의미 확장 기제로서의 환유』, 담화와 인지 24권 4호, 담화인지언어학회, 2017.11: 181-212.
- 종결,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chi)의 의미 확장 비교』, 국어문학 51, 국어문학회, 2011.08: 29-61.
- 최기호, 『사전에 없는 토박이 말』, 토담, 1995: 246.
- 최영주, 『‘생명’ 과 관련된 신체관용구-영어와 한국어의 ‘머리’ 와 ‘목’ 관련 관용구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31권 1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8: 79-96.
- 최영주, 『Corpus Based Collocation Analysis of the phrasal Verb Stand Up』, 영어영문학21 29(2),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6 379-399.
- 최재영 · 김태호, 『개념적 은유의 영역(domain)과 사상(mapping)에 대한 소고』,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16.11: 73.
- Barbara Dancygier, Eve Sweetser. 임지룡 · 김동환 역. “Figurative Languag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4). 『비유언어 :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15.
- Choi, Youngju "The potentiality for actuality metonymy in English and Korean" 영어영문학21, 26:4, 21세기 영어영문학회, (2013): 407-429
- Cooper, W.E. & Ross, J.R(1975). World order. CLS Functionalism, 64-111.
- Evans, V. & M. Green. 임지룡 · 김동환 역.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50.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 Evans, V. 임지룡 · 김동환 역. “How Words Mean: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7.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출판부(2012).
- Hill, C.(1991). Recherches interlinguistiques en orientation spatiale.

Communications 53, 171-207.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1

Kövecses, Z. Metaphor and Emotion.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9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10, 78-80, 271.

Lakoff, G. "The invariance hypothesis: is abstract reason based on image-schemas?", Cognitive Linguistics 1/1, (1990): 39-74.

Lakoff & Johnson, Sweetser and Harald. L & J "Metaphor We Live by proposed that the conceptual metaphor" (1980): 35, 41, 50.

Lakoff & Johnson, M. Philosophy in the Flesh, New York. NY: Basic Books(1999).

Langacker, R.W. Active zones. BLS 10, (1984): 172-188.

Langacker, R.W. Reference-point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1993): 1-38.

Langacker, R.W. Raising and transparency. Language (1995): 1-62, 71.

Niemeier, s, 2008. "To be in control: kind-hearted and cool-headed. The head-heart dichotomy in english", In F. Sharifian, N. Yu, R. Driven & S. Niemeier(eds.), (2008): 349-372.

Radden, Gunter and Zoltan Kövecses. Towards a theory of metonymy. Metonymy in language and thought, eds. by Klaus-Uwe Panther & Gunter Radden, Amsterdam: John Benjamins. Radden, Gunter and Zoltan Kövecses.(1999): 17-59.

Taylor, John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 in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22.

Ungerer & Schmid. 임지룡 · 김동환 역.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gman. (1996): 160.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1998).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

Jtbc, <http://jtbc.joins.com>

SBS, <https://www.sbs.co.kr>

tvN, <http://tvn.tving.com/tvn>

YTN, <https://www.ytn.co.kr>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The Free Dictionary, <https://www.thefreedictionary.com>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https://www.english-corpora.org/coca>

English Language Centers, <https://www.elc.edu>

Sentencedict, <https://sentencedict.com>

The Idiom Connection, <http://www.idiomconnection.com>

American Red Cross, <https://www.redcross.org>

Audi MediaCenter, <https://www.audi-mediacenter.com>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

Daily, <https://www.dailymail.co.uk>

Global Guide, <https://www.globalguide.in>

Guardian News&Media, <https://www.theguardian.com>

NPR, <https://www.npr.org>

Postmedia, <https://calgaryherald.com>

Spectator, <https://www.spectator.co.uk>

War on the Rocks, <https://warontherocks.com>

2019-Education USA, <https://educationusa.state.gov>

Fox 5 Atlanta, <https://www.fox5atlanta.com>

TBS, <https://www.tbs.com>

The Press of Atlantic City, <https://www.pressofatlanticcity.com>

WATN, <https://www.localmemphis.com>

9 Severe Weather Center, <https://www.wftv.com/weather>